

# 애 : 련 히



:가엽고 사랑스럽게 여기어

연출, 각본 정숙윤  
제작 김도인  
촬영 현지용  
음향 이강연  
편집 이유림

## #Prologue 도로길 위 (EXT/D)

길게 뻗은 시멘트길 위로 파란 하늘이 펼쳐진다. 길의 지반이 올라와 아래에서 보면 하늘과 길 뿐인 전경은 마치 서로 다른 두 그림이 만난 듯 보인다. 그 경계를 지나가는 노파와 노파만큼 나이가 든 리어카,形形色색 다채로운 옷가지를 가득 싣고 있다. 쌓인 옷에 등을 기대고 있는 아이가 보인다.

애련

할미 무거워?

오희

응 무거워

애련

옷이 너무 많아서 그래.

애련

## 1. 동네 골목길 (EXT/D)

골목골목 굽이진 길들을 할 일 없이 지나치는 아이, 애련.

조금은 촌스럽지만 개성 넘치는,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입에는 손수건을 둘러 입과 코를 가리고 있다. 그러다 저만치서 떠들며 노는 동네 초등생들을 발견하는 애련. 그 쪽으로 향한다.

단란한 벽화를 뒤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안고 달리는 애련. 뒤쫓아 달려가는 초등생.

## 2. 동네 사거리 (EXT/D)

오희는 사거리 가장자리에서 자리를 펴서 옷들을 올려놓고 팔고있다. 오희도 애련과 같은 촌스러운 느낌의 눈에 띄는 화려한 옷을 입고 손수건을 입에 두르고 있다.

애련이 뿔박질 소리로 동네를 가득 채우며 달려오면 오희가 애련을 익숙한 듯 부른다.

**초등생**

(잔뜩 짜증 부리며) 내놓으라고!

**오희**

(침착하지만 무제있게) 이애련!

오희의 큰 소리에 주변에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희 앞에 멈춰선 애련.

사람들의 관심이 이들에 쏠린다. 흠족스러운 듯 은근히 훑어보이는 애련.

## 3. 집 안 (INT/D)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방을 겨우 밝히는 협소한 공간, 살림살이가 갖춰져있다.

부족하고 빈약한 가구들, 그에 비해 옷장은 벽 한 칸을 가득 채운다.

반대편은 서랍장위 제봉틀 주변으로 천들이 널브러져 있고 벽과 거울엔 어린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가득하다. 우중충한 분위기를 밝히는 몇 없는 아이의 흔적들이 보인다.

드르륵 거리는 제봉틀 소리가 들린다.

오희가 투박하고 낡은 가정용 제봉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방 바닥에 어질러진 옷가지들, 누운 애련이 팔 다리로 바닥을 쓸며 옷들을 치우며 장난친다. 그리고 오희를 올려보는 애련.

**애련**

(천진난만 하게) 할미 나 안흔내?

**오희**

(망설이며 얘기한다) 카세트는 있는 건데... 담부터 안그러면 돼.  
...애들이 너 놀려?

제봉틀에서 투박한 먼마스크를 빼 망설이며 만지작 거리다 결국 건내는 오희.  
거칠고 투박한 손은 상처가 가득하다.  
애련이 오희의 손을 보고 놀라 몸을 일으켜 속상한 표정을 짓는 애련.  
애련의 표정에 오희가 마스크를 씌워준다.

### 오희

애들한테 그러지말구... 속상한거.. 할머니한테 풀어. (달래듯 웃는다)

오희가 일어나자 보이는 거울을 보고 얼굴을 찡그려보는 애련, 거울 속 오희의 움직임을 쫓는다.  
오희는 장롱을 열어 외투를 꺼내 입는다. 그리곤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를 다듬는다.  
거울로 애련과 눈을 맞추면 웃어보인다.  
애련의 시선 끝은 집을 나서는 오희,  
탁! 하고 문이 닫히면 집안은 고요해진다.  
문 쪽을 바라보다 이내 지겨워진 듯 벽지 무늬를 응시하는 애련. 손가락으로 바닥을 달려보고 눈으  
론 방안 곳곳을 탐색하다 오희의 카세트를 발견한다.

## 4. 사거리 옆 골목 (EXT/D)

몸집만한 카세트를 끌어안고 골목길을 지나가는 애련. 모퉁이를 지나자 오희가 보인다.  
오희를 보고 반갑게 다가가는 애련, 갑자기 나타난 이장의 손이 애련의 팔을 낚아채 멈춰세운다.

### 이장

(언성을 높이며) 애련이 니가 혼이 덜났어. 카세트 누구꺼여?  
(당황한 애련이 말을 앓자 소리치며 카세트를 뺏어든다) 누구꺼여!

### 애련

(카세트에 달려들며) 우.. 우리 할머니꺼야!

### 이장

(애련을 막으며 한 팔은 뒤로 뺏어 애련에게서 멀리한다.)  
이게 거짓말은! (카세트를 땅에 내려놓고 애련을 끌고간다)  
따라와!

## 5. 동네 중심 사거리 (EXT/D)

골목에서 이장에게 끌려나오는 애련.

**이장**

(하소연하듯 흥분하며) 할매 애가 또 카세트를 훔쳤네!

오회의 앞에 멈춰선 애련와 이장  
애련의 시선 끝 오회는 표정이 좋지 않다.  
애련은 당황해 말을 않는다.

**이장**

(저들먹 거리듯) 오회 할매 나랑 잠깐 가줘.

**오회**

(애련을 보고 화내며) 여기 꼼짝말구 있어!

이장과 오회가 자리를 비우자 억울한지 씩씩거리는 애련.  
아까 길바닥에 놓아둔 카세트를 챙겨와 안는다.  
그러곤 멀리서 이야기 중인 오회와 이장을 흘깃 살펴 펼쳐진 옷들을 주섬 거리며 챙겨 안다가 카세트를 떨어뜨린다.  
옷들을 끌어안고 힘겨운지 떨어진 카세트를 두고 자리를 뜨는 애련.

cut to

행해진 오회의 돛자리 위.  
옷이 사라진 자리에 넘어져 기스가 난 카세트가 남겨져있다.  
자리에 돌아와 카세트를 제대로 세우는 오회.

## 6. 골목길 (EXT/D)

옷들을 더미로 쌓아 안고 킁킁거리며 걸어가는 애련.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앞이 옷으로 가려져 휘청거리며 길을 헤메고 있다.

## 7. 집 안 (INT/N)

애련이 낡은 미닫이 문을 힘겹게 열면. 오희가 잔뜩 화가난 듯 등지고 있다.  
애련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 하다 오희의 말에 멈춘다.

**오희**

(미안해 하며 나긋이 망설이듯 말한다)

애들이 널 나무라는게... 할미때때... 그래서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줄 알았지

**애련**

(대들듯 말대꾸) 카세트 안훔쳤어 이번엔. 이장 할배가...

**오희**

(조금 언성 높이며) 할미 옷들은 다 어쨌어?

**애련**

(당당하게) 다 버렸어

**오희**

(흥분한다) 왜 버려! 할미 옷을! 할미 옷이 장난같어?  
...천지도 모르는게..

애련이 돌아서 문을 꽁 닫고 나가버린다.

## EXT- 집 신발장

문을 등지고 기대선 애련. 잔뜩 속이 상한 표정이다.

**오희**

(언성 높이며)

그래 나가! 나가서 옷 찾을 때 까진 들어올 생각두 말어!

애련이 집을 나간다.

## 8. 좁은 골목길 (EXT/N)

씩씩거리며 눈물을 보일 듯 정처없이 걸어가는 애련.

골목을 지나는 작은 애련. 한 없이 작고 초라하고 외로워 보인다.

## 9. 논밭 옆 농로 (EXT/N)

옷을 버렸던 곳으로 걸어가는 애련.

옷이 버려진 곳에 가까워지자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노는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에 가까워지자 멈춰서는 애련.

아이들은 스파클라 불꽃놀이를 하고있다.

**초등생**

온다! 온다! (애련이 앞에 서면 으스스대며) 이거 너네 할머니 옷이지?

**애련**

어 맞아. 비켜

**초등생**

너나 비켜. (애련을 살짝 밀친다)

애련이 초등생에 눈을 부라린다.

**초등생**

왜? 일러봐. 아 넌 이를 엄마아빠 없지?

**애련**

(욱한다) 난 할미있어!

**초등생**

너 그 옷긴 옷 만드는 할머니? 근데 왜 맨날 혼자 있냐?

**애련**

(애써 변명하지만 기분이 상한 듯 자신없게) 우리 할미는 바쁘거든

**초등생**

바쁘는데 돈은 왜 없냐? 이 저지야. 그냥 너네 할머니도 싫은거지. 너가.

애련이 초등생을 밀치고 초등생이 스파클러를 놓친다.

애련이 떨어진 스파클러를 얼른 줍는다.

**초등생**

그제 갖고 싶었냐? 그지같은게.

아이들이 스파클러를 모두 버리고 떠난다.

cut to

딱 자기 몸집만한 옷더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애련.  
주변엔 아이들이 버리고 간 스파클러가 거의 다 불타가고 있다.  
손엔 아까 뺏은 스파클러를 쥐고 씩씩거리면서 분한 듯 눈물을 흘리는 애련,  
스파클러를 보다가 쌓인 옷더미에 스파클러를 들이댄다.

cut to

다채로운 색의 불꽃을 내뿜으며 타오는 옷더미들.  
애련이 타는 옷들에 불안한 듯 눈빛이 흔들리지만 이내 은근히 웃어보인다.

## 10. 동네 골목길 (EXT/N)

집을 향해 걸어가는 애련,  
집 앞에서 탄 옷가지 몇 개를 들고 따지듯 하고있는 경찰과 실랑이 중인 오희.  
경찰이 옷을 들고 흔들며 들이대면 오희는 아니라는 듯 손과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  
얼굴과 옷이 검게 그을린 채로 다가오는 애련, 오희와 눈이 마주친다.  
애련의 몰골을 보고 놀란 오희 그제서야 손을 가슴을 툭툭치며 경찰에 자신을 주장하듯 한다.  
애련이 더 다가와 경찰이 애련을 보면 오희가 얼른 애련에게 다가온다.

**오희**

*(애써 침착한 척 속상이듯) 할미 깡잔여. 암말두 말어.*

경찰이 곧 오희와 애련을 향해 다가와 애련을 잡아 끌려 하자 오희가 애련에게 머리를 들이민다.

**오희**

*(뛰어 애련아.*

cut to

달려가는 애련의 뒤로 가로등 빛을 받는 사람들.  
경찰은 애련을 쫓아오고 사람들은 이를 바라만 본다.  
애련은 가로등 빛의 영역 밖으로 달려간다. 곧 어두워지는 얼굴. 빛 앞으로 어두운 애련의 형체가  
돋보인다.  
뒤돌아 그들을 살펴보며 달려가는 애련.  
애련은 이를 악물고 상기된 얼굴로 달려간다.



## 11. 동네 골목길 (EXT/N)

리어카를 끄는 오희. 그리고 리어카에 타 있는 애련이 보인다.  
리어카는 오르막을 힘겹게 오르고 있다.

*애련*  
할미 무거워?

*오희*  
하나도 안무거워

*fin.*